

1 개요

삼두구미본은 시체를 파먹는 괴물의 내력을 담은 신화이다. 한 여인이 삼두구미라는 괴물의 아내가 되어 죽을 위기에 처하나 기지를 발휘하여 괴물을 물리친다는 내용이다.

2 내용

삼두구미라는 할아버지가 터주나라 터주골에 살았다. 아내가 죽자 후처를 얻으러 다니다가 한 노인의 세 자매 가운데 큰딸을 얻었다. 삼두구미는 외출하면서 아내에게 사람 다리를 주면서 먹으라고 하였다. 아내는 다리를 마루 밑에 숨겼다. 돌아온 삼두구미가 다리를 부르니 마루 밑에서 대답하는 소리가 들리므로 아내를 죽였다. 다시 둘째 딸을 아내로 맞아들여 같은 방식으로 죽였다. 막내 딸을 다시 아내로 맞이한다.

삼두구미는 막내딸이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자 달걀, 무쇠조각, 버드나무라고 하였다. 삼두구미는 다시 같은 방식으로 아내를 시험하였다. 막내는 다리를 태워 얻은 뼈를 삼베에 싸서 자신의 배에 묶고 달걀, 무쇠조각, 버드나무 가지를 준비해두었다. 삼두구미가 돌아와 다리를 부르니 막내의 배에서 소리가 나므로 안심하였다. 막내는 삼두구미를 달걀, 무쇠조각으로 맞히고 버드나무로 때리니 삼두구미가 죽었다. 막내는 두 언니를 살려내었다. 이장할 때는 달걀, 무쇠조각을 함께 묻고 버드나무를 심는 법이 생겼다.

3 특징

삼두구미본은 특수본풀이에 속한다. 달리 ‘버들남본’이라는 자료로 전한다. 삼두구미(三頭九尾)는 머리 셋, 꼬리 아홉 달린 괴물이다. 흔히 시신을 파먹는 존재로 전한다.

삼두구미본은 묘를 옮길 때의 관습에 대한 기원을 전하는 이야기인 셈이다. 괴물에게 붙들려갔으나 괴물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어 그것으로 괴물을 퇴치한다는 이야기는 <최고운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4 핵심어

달걀, 무쇠조각, 버드나무, 삼베, 다리, 막내딸, 이장, 삼두구미, 괴물

5 원전 서지사항

삼두구미본(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6 관련 자료

버들남본(문창현, 《풍속무음(축사문) 下》,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4)